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가치 있는 사역,

기독교사의 길

🗣 인터뷰어_전병철(아신대 교수), 번역_박영주(아신대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전병철 교수가 ACSI(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부총재, 데이비드 윌콕스(David Wilcox)를 만났다.

Jun :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David : 저는 일리노이 주의 휘튼이라는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모교이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휘튼대학(Wheaton College)이 있는 곳이지요. 금융가가 되고 싶어서 경제학과에 진학했는데,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회과 교사가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대학원을 특수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휘튼대학에 다니는 동안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 거주 지역으로 12주간 단기 선교 활동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첫 타문화 경험으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현재 ACSI(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를 통해 교육과 타문화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Jun : 경제학에서 교육학으로, 특별히 특수교육학으로의 전환은 정말 흥미롭군요. 한국 대학에서는 정말 드문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David : 저는 여름 방학 동안 다른 여러 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좌들을 수강해서, 학부 과정에 필요한 학점들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과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추가 학점들이 필요했지요. 경제학도 전공하면서, 사회, 정치, 역사 과목들을 광범위하게 추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지요. 또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도 해서 제 교육 경력을 쌓아 갔습니다.

Jun : 휘튼대학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나요?

David : 그렇요, 미국 주정부가 인정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un : 그렇군요, 교육 선교사로서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avid : 당시 약혼녀였던 아내와 저는 1970년에 대학에서 개최되는 어바나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각기 다른 선교기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단체를 찾아보다가 Christian Mission Alliance(이후 CMA)라는 기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CMA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교직 경험과 석사 학위가 필요하더군요. 우리는 그런 높은 기대 수준에 감명을 받았고, 그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행 다음으로 높은 산 등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기회는 처음 사역을 시작한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왔습니다. 그곳의 3,000미터가 넘는 산들을 보면서 그것이 단지 넘어야 할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도 사랑하지만, 등산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자녀들을 데리고 등산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Jun : 정상 정복도 해보셨겠네요,

David : 물론이죠. 우리는 5,000m가 넘는 높고 힘든 산들의 정상을 정복했지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등산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Jun : 캐나다의 인디안 거주지에서 처음 타문화를 경험하고,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가 교육 활동을 하셨다는 거군요.

David : 맞습니다.

Jun : 우리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군요. 저 역시 1996년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사역의 부르심을 확인한 바 있거든요.

David : 그렇군요, 저는 그보다 20년 전이었답니다.

Jun : 20년 전이라구요, 그럼 우리의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David : 에콰도르에서 7년을 사역한 뒤 우리 가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초청을 받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에콰도르의 생활을 너무나 사랑했고, 스페인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말레이시아로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 문화나 기후 조건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 역시 교육사역이었기에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달랏국제학교 총감(headmaster)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이지만 지역에 있는 국제 비즈니스맨들의 자녀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ACSI는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약자입니다.

1978년에 창립된 비교적 젊은 기관이지요.

미국 내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몇 개의 그룹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

즉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독교적 사명과 비전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Jun : 교육이 세계 복음화의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인가요?

David : 우리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지만, 단지 선교사 자녀들만 교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는 대만인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대만인들은 자녀들을 에콰도르 현지 학교나 제가 사역하던 학교에 보냈는데, 그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로,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뿐 아니라, 교회에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Jun : 재! 이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ACSI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기관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avid : ACSI는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약자입니다. 1978년에 창립된 비교적 젊은 기관이지요. 미국 내에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 몇 개의 그룹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 즉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독교적 사명과 비전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ACSI는 전 세계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 교육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국제 기독교학교들, 그중에서도 특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남미에 있을 당시 ACSI에서 남미 전 지역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들을 위한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학교가 교사 컨퍼런스를 주관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학교와 교육가들을 섬기고자 하는 ACSI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ACSI는 현재 100여 개의 국가에 23,000여 개의 회원 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콩고 공화국, 호주,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독교학교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학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과정에도 동참하고 있지요.

Jun : 그렇다면 ACSI와 한국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David :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들과 외국인 학교들도 있더군요. 물론 공립학교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사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ACSI는 몇 해 전 수원에 한국인 책임자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학교와 교사들을 섬기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교육가들이 전 세계의 국제 기독교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한국 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un : 그래서 이번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하 ACTS)과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Torch)를 방문하신 것입니까?

David : 이번에 두 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는 ACTS와 Torch의 교사 교육과정 인증 평가를 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ACSI는 미국 내 많은 기독교 대학의 교사 교육과정을 인증해왔습니다. ACTS와 Torch는 이번 평가 방문을 통해 미국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교사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ACSI가 두 학교를 통해 양성되는 한국의 기독교사들이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사들이 두 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 부여되는 교사 자격을 가지면, 국제적으로 여행하고 활동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ACSI는 한국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대안학교들과도 여러모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학교들에 ACTS와 Torch에서 훈련받은 양질의 교사들을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이 두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드립니다.



Jun : 당신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David :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사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은 공통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환경뿐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 어디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Jun :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 전 '무비가이드'라는 잡지에서 읽은 기사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나 학교보다 미디어의 영향을 더 깊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 교육에 미디어 교육 또는 문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David : 물론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디어 역시 학생들이 시청하고, 읽고, 또는 게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분별력은 그들의 전 생애에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Jun : 기독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이 세대에 기독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avid : 기독교사들은 먼저 자신의 학과 영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충분하겠지요. 기독교에서는 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에 전문가가 되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기독교사들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장차 일하게 될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또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Jun : 기독교세계관 통합 교육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David : 기독교세계관은 우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장차 기독교 사업가로, 법률가로, 외교관으로, 그 외 어떠한 영역이던지 기독교 신앙과 원리들을 바르게 실천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섬기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는 학생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들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Jun : '연습'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David :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유행하는 영화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본 영화에서 어떤 성경적인 진리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지, 때로는 그 영화가 시사하는 잘못된 가치관, 또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겉보기에 멋있고 좋아 보인다고 실제도 그런 것은 아니라 아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Jun :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반드시 비기독교인이 만든 영화를 보지 못하게 막거나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David : 그렇지요. 기독교세계관이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사라고 단지 기독교 교리들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그 교리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배우는 일반 교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Jun :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몇몇 기독교인 부모와 목회자들이 저에게 <겨울 왕국>이나 <노아> 같은 영화가 비기독교적이라며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며 제 견해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세계관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세속 영화들을 우리 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금기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David : 물론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나는 이런 면들을 보지 않겠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해서 내 마음이 나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겠다.”와 같은 경계심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영화들은 가능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영화들이 평화적 문제 해결보다는 무력 사용을 당연시 또는 합리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여러 영역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겨울왕국>을 보지 않아서 그 영화 자체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이런 종류의 영화 속의 메시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Jun : 우리가 모든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군요.

David :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헌신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기를 바라시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정확히 보고 평가를 잘 내리길 원하실만한 영화들도 있을 테고 말입니다.

Jun : 네, 우리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 이러한 균형잡힌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 자주 방문하신 걸로 압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 학교와 교사들이 가진 장점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avid : 저는 다른 나라의 교육 체제와 문화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교육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교육상의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을 추구하려는 열망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일하는 현장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공교육에 있는 교사라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권이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들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재량권이 커지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나 질이 공교육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지는 도전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월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ACSI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교육에서 일하는 기독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교사로 살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각기 다른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에서 일하는 교사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Jun : 지금 ACSI의 부총재로 사역하고 계신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David : 저는 지금까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ACSI 지부를 개설하고 발전을 돕는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적절한 수의 기독교 학교와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면, ACSI는 그분들을 도와서, 교사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돕고, 기독교 학교로서의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학교들이 그들 본연의 사명과 목적에 맞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학교들이 동시에 그 지역에서 최상의 학교들이 되기를 바라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모든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수한 학문 교육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인도를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천 개의 기독교학교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사들은 20-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저의 과제는 어떻게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학교가 되도록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기독교인 교사가 현저하게 부족한 그곳 현실에서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기쁨은 전 세계의 기독교사들이 연합해서 서로의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학문적 수월성뿐 아니라 학생들의 영성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Jun :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사들과 기독교학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David : 기독교 교사가 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원까지 지속될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사들이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로서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기독교학교 국제연맹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약칭 ACSI)

1978년 설립된 ACSI는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의 약자로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두고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 기관입니다. ACSI는 기독교교육가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독교학교를 위한 기능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을 위한 인증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촉진하고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사들을 위한 훈련과 자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으로,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으로 공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온전하고 학문적으로 탁월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건전한 학교를 세우며, 성경적 세계관을 구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가르침과 제자화를 실천하고 자신의 성장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자 양성을 비전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acsikorea.or.kr>
주소 (442-819)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수대로 604번길 18 메르디앙빌딩 601호
Tel 070-4488-2500-1 Fax 031-217-2501 Email acsikorea@acsi.or.kr